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3. 10.(수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 (도심융합특구팀)	담당자	• 과장 정의경, 팀장 김부병, 사무관 조계환, 사무관 박병관, 주무관 김연우 • ☎ (044) 201-3650, 3651, 4733, 4744
	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	담당자	• 과장 나윤정, 사무관 안건희 • ☎ (044) 215-8570, 8574
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신성식, 서기관 오지영 • ☎ (042) 481-1695, 1696
보 도 일 시		2021년 3월 1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0.(수) 17:00 이후 보도 가능	

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

-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(3.10)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 -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기획재정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,
 - ※ 기획재정부 :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한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 모색
 - 중소벤처기업부 : 혁신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·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
 - 지방 대도시(광역시 5곳)의 도심에 기업,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업·주거·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,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.
- 그간, 국토교통부는 「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」(20.9.23)을 발표한 이후,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(20.12.22)하였으며, 대구와 광주는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.
 - ※ (대구)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, 약 98만㎡, (광주) 상무지구 일원, 약 85만㎡

□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(약 124만m²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서로 인접(1.7km)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도시교통(대전 지하철 1호선 등)·광역교통(KTX 대전역) 인프라, 문화·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다.
- KTX 대전역 일원(약 103만m²)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,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(약 21만m²)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, 대전세무서 부지,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·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,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.
-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, 문체부,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※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를 실시

- ① (KTX 대전역 일원) 토지거래허가구역, 개발행위허가구역 지정(20.5월~)
- ② (충남도청 이전지 일원)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(21.3.10)

□ 대전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,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(3억원)을 지원하게 된다.

- 5대 광역시 중 기 선정된 대구·광주·대전 외에 부산·울산과는 적정 후보지역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,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“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,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”된다면서,
- “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부병 팀장(201-36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전 사업지구 위치도



-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(약 21만㎡)과 대전역 일원(약 103만㎡)를 묶어 특구로 제안
- 광역·도시 교통 인프라와 문화·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도심지 내에 위치(1.7km 거리)

2. KTX 대전역 일원 내에 포함된 기존사업 위치도



- 대전역 일원에는 대전시가 혁신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(약 88만㎡)이 포함되어 있으나, 현재 이전기관 규모, 구체적인 입지, 면적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, 올해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(총 사업비 5,542.7억원 규모)이 추진 중인 구역(약 20만㎡)도 포함
- 혁신도시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추진 가능

1. 대구시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



- 대구 도심지 내에 위치하며, 교육 · 주거 · 의료 · 동대구역 등 생활 및 교통 인프라 우수
- 경북도청 이전부지(약 14만㎡)는 국 · 공유지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문체부는 특구 추진에 찬성 입장, 대구시는 경북대(약 75만㎡)와 삼성창조캠퍼스(약 9만㎡)를 특구로 묶어 제안

2. 광주시 상무지구 일원



- 행정 · 교육 · 주거 · 금융 · 의료 · 지하철 · KTX 등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
- 개발가능용지(약 60만㎡)가 충분하여 지역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 가능하고, 개발가능용지

대부분이 공유지(약 29만 m²)와 농지인 사유지(약 29만 m²)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